

美 USTR “주내 FTA 추가 협의 시작”

〈무역대표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주 중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스티브 노튼 USTR 대변인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노동과 환경 분야 등을 비롯, 미 의회와의 합의 내용을 법 조문화 하는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면서 “다음 주 중에는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은 내주로 예상되는 추가 협의에서 FTA 협정문에 불만이 많은

“노동·환경분야 법 조문화 거의 막바지 단계”

한국 “민감 분야 추가 양보 없다” 진통 일 듯

미국내 축산농가 등 농업과 노동, 자동차 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우리 측의 추가 양보를 얻어낸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이에 대해 미국의 추가 협의의 자체는 받아들일겠지만 민감한 분야에 대한 합의 여부는 내용을

바라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서명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USTR은 24일 한미 FTA 공개와 함께 FTA로 영향을 받는 각 분야별 27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취합해 지난 1일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했

으며 이날 협정문과 함께 공개했다.

미국내 주요 관련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각 분야별 자문위는 대체로 관세 철폐로 인한 교역확대 등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일부 분야는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며 의회 등에 거부나 대폭 수정 등을 촉구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고 한편으로 쌀이 협정문에서 제외된 데 실망감을 표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륙하는 열기구

26일 칠레 산티아고의 토발라바 에어돔에서 열린 열기구전람회서 열기구들이 이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韓美 FTA 협정문 공개

◇모호한 표현…벌써 해석차(?) = 26일 정부가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이 채택한 금융 서비스 분야의 부속서한은 “미국은 한국이 금융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긍정적인 조치를 인정하면서 한국의 3가지 규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가지 규제 이니셔티브로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접근(자본시장통합법) ▲2단계 방카슈랑스 이행 ▲보험서비스 공급 분야의 외환보유 요건의 추가적 자유화를 들었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경우 금융권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2단계 방카슈랑스 역시 당초 계획보다 상품별로 최장 3년간 시행이 유예될 만큼 국내 논란이 큰 사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들 사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미국이 관련 사항 설정 등을 원했지만 우리측이 거부, 결국

곳곳에 ‘모호한 표현’ 벌써부터 논란거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공개 이후 개성공단,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은 논란거리도 적지 않다. 모호한 표현으로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양국간 FTA 발효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령수의 차이 등도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협의·개정 법령수 차이 등도 재조명될 듯

네거티브 규제 등에 대해 미측이 구속력있는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부속서한을 채택하는 선에서 조율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추가 협의의 필요한 사항 적잖아 = 제재권 분야에서는 양국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부속서한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 등 대부분 국내 인터넷 사이트가 저작물 게재 때 일

일이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협정 발효 이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지적권 보호 노력이나 위반 정도 등 구체적인 집행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은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 정책지침을 발표하는데 동의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이 부속서한은 명시했다. /연합뉴스

결국 구체적인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셈이다.

◇법령 개정 불균형 논란도 잠재 = 협정문과 함께 배포된 상세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측이 한미 FTA로 인해 개정해야 하는 법령은 2개다.

우선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와 관련, 통관·산출물조정법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버번 위스키 등 자국 특산품의 명칭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급부로 합의한 안동소주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방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20여개의 법률 등 40개가 넘는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 9개에 달한다. /연합뉴스

쌀 지원 유보…남북 장관급회담 순항할까

29일 서울 개막…北 반발 등 ‘신경전’ 불가피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9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 17일 진행된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으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열리지만 지지부진한 북핵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로 북핵 ‘2·13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날 말부터 제공하기로 했던 대북 쌀 지원을 유보함으로써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BDA문제가 조만간 풀려 2·13합의가 이행된다면 쌀 지원은 곧바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강조한 뒤 철도 부분개통과 군사적 긴장완화 등 현안을 적극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쌀 지원 유보 회담 영향 미칠까 =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제19차 장관급회담에서는 쌀 지원과 비료 추가 지원을 유보한 남측의 방침에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공전만 거듭한 채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일찍 종료됐다.

정부는 일단 이번 21차 회담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북한이 회담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북한은 25일 판문점 연락관접촉을 통해 참석 의사를 밝혔

고 이 자리에서 쌀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회담장에서는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량난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은 대북 쌀 지원 여부를 남측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동조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고 있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도 부분개통 적극 제기할 듯 =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열차 시험운행으로 조성된 남북 간 화해분위기를 살려 철도 부분개통을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개통을 위해서는 군사보장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라크 미군 ‘잔인한 4월’ 이어 ‘피의 5월’

사망자 두달 연속 100명 넘어서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 2003년 3월 이라크전쟁 개전 이래 월 사망자가 처음으로 두 달 연속 100명 이상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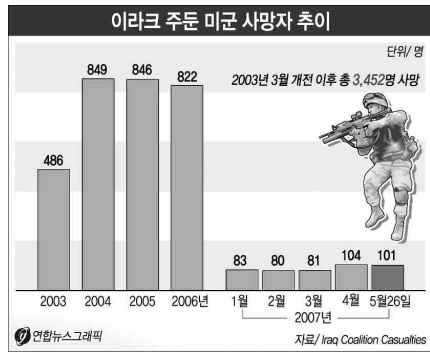
이라크 주둔 미군은 26일 지난 사흘간 바그다드 북부 살라후딘(티크리트) 주(州), 바그다드 시내, 안바르 주 등 이라크 곳곳에서 보고되지 않은 5건의 저항세력의 공격과 전투로 미군 8명

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달 들어 미군 사망자는 101명(총사망자 3천452명)으로 늘었다. 지난 달 미군 사망자는 104명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월간 단위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재 추세라면 이번 달 미군 사망자 수는 120~121명을 기록, 5월이 미군에 최악의 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달 추정 사망자 수는 이라크전 개전 이래 월간 단위로 가장 큰 것은 아니지만 2개월 연속 월 사망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올 4~5월이 처음이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잔인한 4월’에 이어 ‘피의 5월’을 맞이할 셈이다. /두바이=연합뉴스



미군은 이라크에서 ‘잔인한 4월’에 이어 ‘피의 5월’을 맞이할 셈이다. /두바이=연합뉴스

美 MD 요격시험 무산 ‘후폭풍’ 의회, 관련 예산 삭감 추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을 겨냥한 미국 사상 두번째 미사일방어망(MD) 요격시험이 무산된 가운데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의 MD관련 예산요청액 3억1천만 달러를 대폭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미사일방어국은 25일 오전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요격시험에 나섰으나 목표 미사일이 정해진 고도에 오르지 못하고 중간에 추락하는 바람에 발사 예정 8~10분 전에 시험을 전격 연기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美 대학생 58% “삼성은 일본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시장에서 광복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대학생들은 이들 기업이 한국기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현지시간) 미 마케팅컨설팅체인 앤더슨 애널리틱스가 내놓은 미국 대학생들의 유명 브랜드 국적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8%가 삼성전자를 일본기업이라고 대

답했으며 한국기업이라는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LG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41.9%가 미국기업으로, 26%는 일본기업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한국기업이라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현대자동차 역시 일본기업이라는 잘못된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24.5%만이 현대자동차를 한국기업으로 알고 있었다. /뉴욕=연합뉴스

(株) 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초대졸 커플매니저 0명 모집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호남지역총괄 (株) 행복출발 (062) 527-3388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바즐닷컴 >go 을 치세요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등록번호 616-81-11280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주세요!

뜨아아~ 무도출발, 북동(보통)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를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재예술원, 일출랜드, 승미저택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p>목포 출발 “목카투어” 78,000원</p> <p>★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출발-홍천1박</p> <p>•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등반 -홍천1박</p> <p>•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30)출발 (단, 일요일은 16:30출발)</p> <p>★ 출발일: 매일출발(단, 토요일은 제외)</p> <p>-토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p> <p>★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p>	<p>고령(북동)출발 “북동투어” 78,000원</p> <p>★ 일정 - 1일째: 북동 남해고속터미널(10시)출발 -홍천1박</p> <p>•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홍천1박</p> <p>•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8:00)출발</p> <p>★ 출발일: 매일출발(단, 금요일과 일요일은 제외)</p> <p>-금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p> <p>★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p>	<p>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주중+주중) 179,000원(주중+주말)</p> <p>★ 렌트카 파격할인★</p> <p>전차종 75% 할인</p> <p>※이반테 24시간 22,700원(네비게이션 포함)</p>
---	--	---

[1박2일 크루즈투어] 68,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4일 크루즈투어] 108,000원 (한라산등반+2일 제주관광) [2박 3일 크루즈+항공투어] 119,000원(주중) / 139,000원(주말)

오전기념: 해저탐험 잠수관관광을 원하시면 49,500원→30,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한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품 요금 적용)

조흥은행 708-01-074067 제주무궁화관광

문의: ☎064-744-1109 www.jejuj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씨월드고속해리